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프랑스 핵무기 폐일 세이프 대화

2024년 10월 28일 프랑스 파리

회의 요약

개요

» 2024년 10월 28일,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ELN)와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Ifri)는 파리에서 회의를 공동 주최하였으며, 프랑스 전문가, 총리실 공직자¹, 국방부 소속 핵무기 안보 담당 헌병대 대표², 국방부³ 및 유럽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핵안전, 보안, 확실성 보장 – 폐일 세이프 검토의 의의” 라는 제목의 이 회의는 핵무기의 무단 사용, 우발적 사용 또는 실수로 인한 사용을 방지하는 핵무기 폐일 세이프에만 집중되었다.

» 회의의 목적은 프랑스의 정부통제와 같은 내부적, 일방적 검토 메커니즘 및 조치들을 논의하고, 양자 및 다자(유엔 상임이사국 포함) 논의와 이니셔티브의 의제로서 핵무기 폐일 세이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 이번 워크숍은 핵 위협 이니셔티브(Nuclear Threat Initiative)의 지원을 받아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ELN)가 수행하는 폐일 세이프 조치에 관한 광범위한 지역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¹ 국방 및 국가안보 사무총국(SGDSN)은 총리실 소속 부서로서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의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한다.

² 내무부 소속 조직인 핵무기 안보 헌병대(GSAN)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³ 국제관계 및 전략총국(DGRIS)과 미래전투사령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 논의 사항

» 정부통제(CG)⁴에 명시된 프랑스 핵무기 안전 및 보안 절차의 장점과, 기존 프랑스 검토 메커니즘이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자의 핵무기고의 안전과 보안을 검토하는 모범 사례 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

» 프랑스 핵 교리가 1991년 미국의 핵무기 폐일 세이프 및 위험감소 검토(FARR)에 영감을 준 방식

» 정부통제(CG) 규정과 관련된 다음 측면들이 보장하는 기존 검토 메커니즘의 견고성과 포괄성

- 지속적이고 명확한 검토 절차와 강력한 준수 및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대통령만이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
- 정부통제의 조치들은 시간에 따라 진화하며 위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함. 정부통제는 중요 정보기술 시스템의 취약성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2월 대통령령으로 최종 개정되었으며, 2025년 4월에는 하청에 대한 강화된 통제 등 핵 국방 부문의 민감한 작전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련 법령에서도 개정되었음.
- 실수를 교훈으로 바꾸어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튼튼한 내부 피드백 문화.
- 현재 검토 과정 중 일부를 시행하는 부대인 헌병대(GSAN)는 합동참모본부통제 하에 있지 않아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
- 정부 통제 내용은 국방 기밀 허가에 의해 보호받지만,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의회의 질의를 받을 수 있음.

» 프랑스 검토 메커니즘에 대한 의회 감시의 이점 - 프랑스에서는 정부 통제 담당 관료들이 의회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지만, 프랑스 관료들은 이것이 다른 핵 보유국들에서는 흔한 관행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 의회에 대해 더 많은 개방성을 채택하는 데 찬성했다.

» UN 상임이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핵무기 안전 및 보안 절차를 검토할 전망에 대한 논의

» N5/UN 상임이사국 맥락에서, 아마도 중국의 UN 상임이사국 의장직 하에서 핵무기 폐일 세이프 문제를 다루는 것의 장점에 대한 논의

» 프랑스 관계자들은 현행 구조의 신뢰성과 견고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가 핵무기의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사용 또는 실수에 의한 사용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독립적 검토나 검토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재검토의 즉각적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지만, 정부통제(CG)가 다른 핵보유국들을 위한 모범 사례 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참석자들은 프랑스의 핵무기 폐일 세이프 메커니즘이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1991년 핵무기 폐일 세이프 및 위험감소 연방자문위원회(FARR)를 포함한 미국의 절차에 영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프랑스 당국자들은 다른 핵보유국들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는 것에 찬성했다. 또한 프랑스 국민에게 기존의 핵무기 폐일 세이프에 대해 더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⁴ 정부통제(CG)는 프랑스 핵무기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부 통제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담고 있으며, 국방법전(Code de la défense)에 규정되어 있다.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참석자 동의 사항

» 견고한 핵무기 페일 세이프는 모든 핵 보유국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방적 포지티브섬(positive sum)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

» 영어의 "페일 세이프(fail-safe)"에 해당하는 용어가 프랑스어에는 없다.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ELN)는 "assurer la sûreté des armes nucléaires"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영어로 "핵무기의 안전 보장(ensuring the safety of nuclear weapons)"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은 이 용어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맥락에서 영어 용어 "페일 세이프(fail-safe)"는 자동적으로 정부 통제(CG)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통제(CG)는 페일 세이프(fail-safe)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 핵무기 페일 세이프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은 공공 영역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프랑스의 맥락에서는 핵무기 안전에 대한 대중적 약속을 고려할 때, 검토 메커니즘을 둘러싼 투명성과 소통이 중요하다. 핵무기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더 큰 투명성은 반억지력(anti-deterrence) 목소리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투명성이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도 있다.

» 프랑스 관료들은 독립적인 검토의 즉각적인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들은 정부 통제(CG)에 명시된 기존 메커니즘이 프랑스 억지력의 지속적인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포함한 위협들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배적인 위협 환경에 따라 절차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통제(CG)의 발전적인 문화는 근본적으로 사고로 비화할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주 경미한 문제까지도 보고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통제(CG)담당자들은 이러한 미세한 사항들까지도 지휘 계통에 전달하여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어떤 문제도 모호함 없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결론

» 파리 대화는 핵무기 안전, 보안 및 신뢰성과 관련된 검토 절차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확립했다. 범위의 포괄성, 의회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현행 검토 절차의 적응성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매우 훌륭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시스템에서 이행 체계와 보안 체계를 명시적으로 분리한 것에는 큰 이점이 있다. UN 상임이사국 맥락을 포함하여 국민 및 다른 핵보유국들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프랑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다.